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3월 후원미사는 18일, 4월 후원미사는 15일, 5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1,722,049	전월이월금	30,299
지 로	2,471,970	우리은행	8,123,410
국민은행	5,127,200	하나은행	1,156,120
조흥은행	85,010	신한은행	1,175,110
외환은행	767,580	제일은행	145,020
농 협	2,245,250	기업은행	370,080
우 체 국	25,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운영비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운영관리비 등
	이주사목위원회	5,075,311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9,900,311	잔액(이월금)	1,821,738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2 / 제32호

펴낸날 2019. 2.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지난 2월 1일 서울대교구에서는 사제서품식이 있었습니다. 26명의 사제와 28명의 귀한 성직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새 사제들과 부제를 가운데 어릴 적부터 알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신학생이던 시절 초등학교 복사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철부지 소년은 이제 어엿한 새 사제가 되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좋은 동료를 보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쑥스러운 듯 정말 형이라고 불러도 되요 라고 묻는 동생에게 당연하지 그래야지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인생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인연, 우정이란 생각할수록 신비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가꾼다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들은 선물처럼 주어지고 행운처럼 유지됩니다.

한번은 절친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네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참 고마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인간관계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오해나 알 수 없는 상처때문이라도 너와의 관계가 언젠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떻게 끝이 나더라도 난 너와의 우정에서 감사했던 일만 기억할 것이고 널 원망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냐며 좀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 나의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최고의 감사함의 표현이야라고.

이번 달로 지난 8년여를 함께 사목했던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감사한 동료 김평안 신부님의 소임이 끝났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이주사목위원회가 분리되면서 한참 동생인 제가 위원장 소임을 맡게 되었고, 사목을 시작하면서 신부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소임이 끝나면 형님이라고 하겠지만 함께 일하는 중에는 서로에게 존칭을 썼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맡게 되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하고 무지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김 신부님은 편한 형처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신부님과 추억들은 제 가슴속에 귀한 보석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 새로운 여정을 떠나시는 김평안 마르코 신부님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신부님, 애 많이 쓰셨고, 진심으로 좋은 동료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몽골공동체 소식*



1월 19~20일 12명의 몽골신자들과 함께 성령선교 수녀회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타지에서 겪는 신앙생활에 대한 나눔과 고해성사 등으로 바쁜 삶 안에서 다시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사목 중이신 김성현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시어 의사소통에 문제없이 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더욱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가별 공동체 연합행사 소식*

겨울방학을 맞아 남미·중국·몽골공동체 어린이들과 마고네 공부방 학생들 28명이 지난 1월 24일에 눈썰매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와 독감으로 그 동안 실외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행사 당일엔 추웠을 뿐 깨끗한 공기로 더욱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재)바보의 나눔을 통해 (유)돌코리아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지원"지정기탁 사업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배울 기회가 없었던 학생 6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한 학생은 사춘기 학생으로 자존감이 낮았었지만 배우고 싶은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성실히 모든 단계를 이수하고 재능을 보여 학원장의 도움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눈썰매 체험학습(부모참여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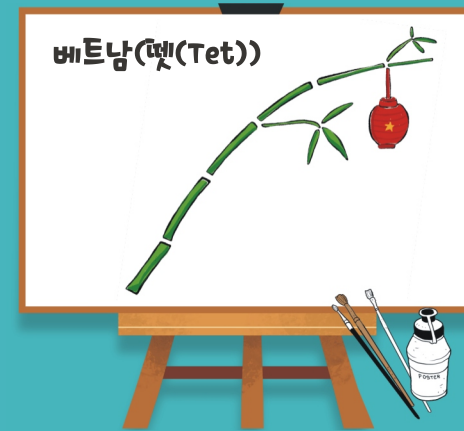
설 인사 ▶



공지사항 *사제 인사 발령

지난 8년 동안 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함께 하신 김평안 마르코 부위원장 신부님께서 2월 사제 인사 발령으로 이주사목위원회 사목을 마치고 살레시오 수도회로 복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주민과 함께하며 이주사목에 힘써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새로 부임하시는 곳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문화알림 설명절 1편



설날이 다가오면 베트남 가정에서는 '꺼이 네우(Cay neu)'를 준비하는데, 이는 악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풍습입니다. '꺼이 네우'의 뜻은 '악귀의 침입을 막고, 한 해의 복을 비는 뜻으로 집 앞에 장대를 설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끝에 방울을 걸어 놓으면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서 악귀가 무서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지방 하노이에서는 설날이 다가오면 복숭아나무의 분홍 물결이, 남부지방 호치민에서는 매화나무의 노란 물결로 거리를 맞이합니다. 복숭아나무의 색은 건강과 재복을 의미하며 매화나무의 색은 집안의 악을 쫓아내는 색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송크란은 태국 전통 설로 태국에서 가장 큰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불력에 따라 매년 4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송크란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일명 물의 축제로 알려져 있는 송크란은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축제기간 동안 어른들께 존경을 표하고, 모두 한데 어울려 물을 뿌리며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태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기간에 태국을 방문합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신정에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른 날 특별히 설날을 지내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다 같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음식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불꽃놀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설날 풍습 중 독특한 점은 12가지의 둥근 과일을 올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둥근 것은 돈과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오고 원만하게 새해를 보내길 기원하는 것입니다.